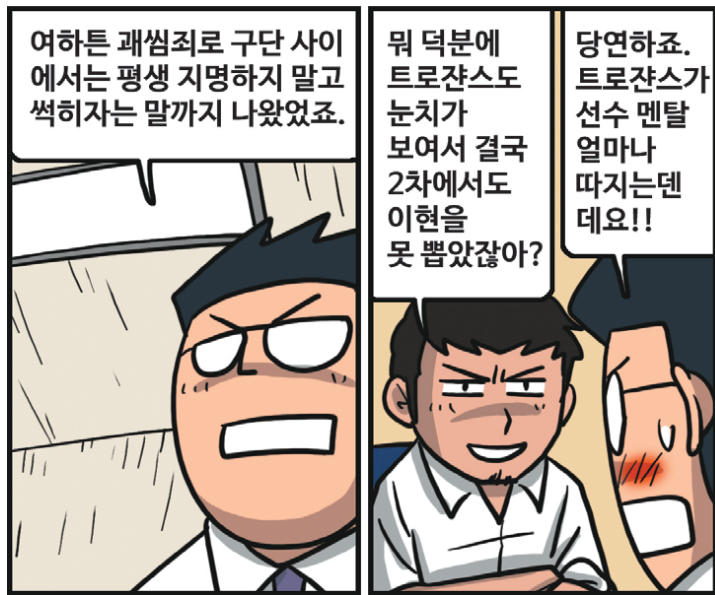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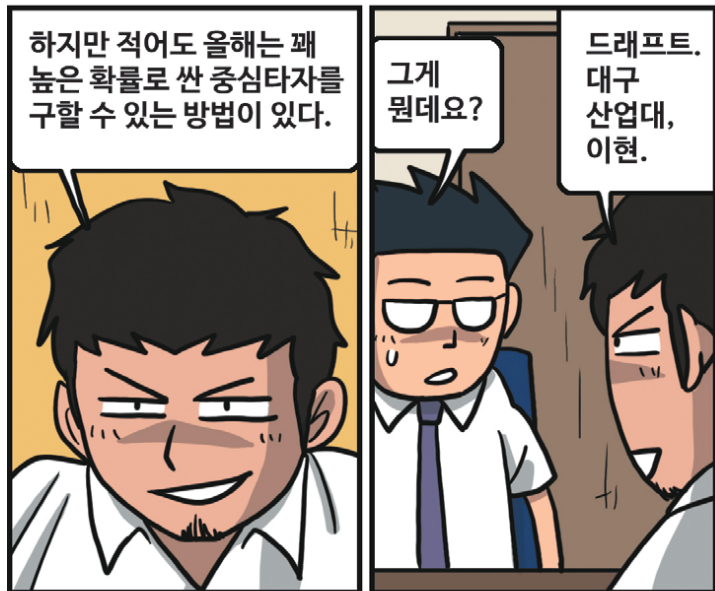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Biz gallery

클레어스, '게리송 올 스테이지 원팩' 선보

클레어스 코리아는 마유 함유 스킨케어 브랜드 게리송을 통해 스킨, 에센스, 마스크팩, 로션, 크림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 집중관리가 가능한 홈 케어 마스크 팩 '게리송 올 스테이지 원 팩'을 출시했다. 나인컴플렉스 명동 직영점 과 나인컴플렉스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부평힘찬병원, 카자흐 의료관광 상담회

관절전문 부평힘찬병원이 22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리는 '2016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사진)에서 의료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 박람회는 43개국, 475여 개 업체 및 기관이 참석하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국제관광박람회다. 카자흐스탄 의료

상담회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비자 실시로 늘어난 방한 카자흐스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의료기술을 소개하고, 의료관광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힘찬병원은 박람회의 부스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상담 및 체험도 실시하고 있다.

내일투어 30일 유럽배낭여행 설명회

내일투어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구 부산에서 유럽 배낭여행 설명회(사진)를 동시 진행한다. 연세대학교, 계명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각각 진행하고 지역별 300명씩 선착순, 내일투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추천을 통해 영국항공 유럽왕복항공권(지역별 1명), 유레일패스 1등석(지역별 1명), 알프스 티베리스 등장권(지역

별 4명씩), 가이드북 '유럽으로 가출하기'(지역별 5명)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김풍 등 예천곤충엑스포 홍보대사 위촉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는 어린이 프로그램 '보나하니' 진행자 신동우 이수민과 웹툰작가 겸 방송인 김풍(사진 왼쪽부터)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방송 CF를 비롯해 개막식 행사, 쿠키 클래스 및 콘서트 등을 통해 행사를 홍보한다. 세계곤충학회가 인증한 세계 최대 곤충 박람회인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는 '곤충의 꿈 이야기'를 주제로 7월30일부터 8월15일까지 예천 공설운동장 및 곤충생태원 일원에서 열린다.

리츠칼튼서울, 등급평가 5성 획득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서울(사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호텔 등급심사를 통해 최고 등급인 5성을 받았다. 등급심사는 3월 현장평가와 암행평가를 통해 서비스부터 객실, 레스토랑, 주방 등 호텔의 모든 공간을 심사했다. 리츠칼튼 서울은 1995년 2월 오픈 해 객실 375개와 6개의 레스토랑, 바와 텔리, 피트니스 클럽, 스파 등을 갖추고 있다.

'퍼펙트 헤어 데이 드라이 샴푸' 출시

미국의 바이오테크 헤어 케어 브랜드 리빙프루프는 신제품 '퍼펙트 헤어 데이 드라이 샴푸'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물 없이도 깨끗한 두피와 모발

을 유지할 수 있는 드라이 샴푸 리빙프루프가 개발한 트리플 액션 클리닝 테크놀로지를 적용했다. 모발에 뿌리고 30초 후 털어내면 되는 간편한 사용법으로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세종호텔 충주방장 박효남 전무 갈라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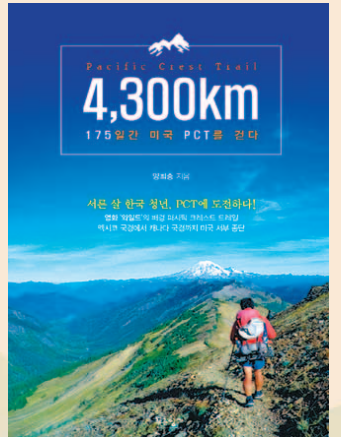
세종호텔은 라운지&다이닝 베르다에서 총주방장 '박효남 전무의 갈라 디너'(사진)를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한다. 박 전무는 국내 9명만 이름을 올린 요리명장 중 한 명으로 이번 갈라 디너에서는 봄철 대표적인 봄나물, 해산물 등을 활용해 프랜치 스타일의 8가지 코스요리를 선보인다. 갈라 디너에는 각 코스에 맞춰 패어링한 와인 5종을 함께 제공하며 사전 예약한 고객만 참여할 수 있다.

Culture diary Book

서른살 청년, 175일간의 美 서부산맥 종단기

●4300km | 최종 지음 | 푸른향기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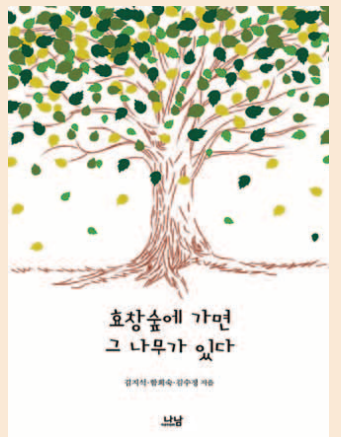
그것은 '미친 짓'이다.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이어진 4300km의 미국 서부종단 산길 '퍼스픽 크레스트 트레일(PCT)'을 걷는다는 것은 '미치지' 않고는 하기 힘들다. 그 모험을 마친 한 국의 한 젊은이가 있다. 서른 살의 모험가 양희종 씨다. 그는 서른을 앞둔 시점에 멸종하게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4300km의 PCT로 떠난다. 영화 '와일드'의 배경이 된 그곳이다. 텐트와 침낭, 식량을 배낭에 짊어지고 9개의 산맥과 사막 그리고 황무지를 걸었다. 무려 175일이 걸렸다. 트레일을 걷는 동안 폭염과 폭설 폭풍우 등 자연과 맞섰다. 때론 모기떼와 싸우고, 들짐승과 맞대면하는가 하면 고산증으로 지독한 편두통에 시달리기도 했다.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트레일 도중 다양한 하이커들과 만나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인간의 뉘성을 느꼈다. 이 책에는 저자가 175일간 PCT를 걸으며 길 위에서 느낀 사색과 성찰 그리고 하이커들과의 공감과 우정이 생생하게 실려 있다. 극한의 걷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 저자의 도전정신은 꿈을 잃은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일어나. 넌 할 수 있어!'라는 주비소리로 들린다. 사족, 그의 다음 도전은 미국 중부 로키산맥을 따라 5000km 이어진 콘티넨탈 디바이드 트레일(CDT)이다.



계절따라 새 옷 입는 효창공원의 식물·동물 이야기

●효창숲에 가면 그 나무가 있다 | 김지석·함희숙·김수정 지음 | 나남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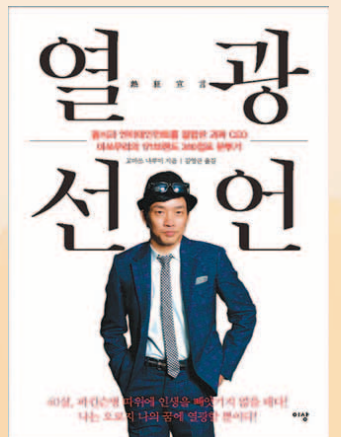
서울 용산구에 있는 효창공원은 왕실묘지로 역사와 도시공원의 성격 덕에 다채로운 식물 생태계의 보고다. 원래는 조선 정조의 첫째 아들 문효세자와 그의 어머니 의빈 성씨의 무덤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강제 이장 당해 그 후 일본군 기지로 활용됐다. 지금은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선생의 묘가 있는 역사적 장소다. 이 책은 서울 대표 도시숲인 효창공원 인근의 직장인들이 '나무모임'을 만들어 여러 해에 걸쳐 효창공원을 찾아가 계절에 따라 바뀌는 나무와 꽃, 풀을 관찰한 결과물이다. 그 종류만 170여종에 달한다.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식물들의 생리와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효창공원에서 살고 있는 참새 다람쥐 등 동물들의 살림살이도 함께 담았다. 효창공원의 숲과 동식물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책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동네 생명들의 이야기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 매 장마다 덧붙인 '더보기 해보기'에서는 숲에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꽃이나 열매, 나뭇잎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팁을 소개해 또 하나의 즐거움을 준다.



日 외식업계 이단아 '미쓰무라 아쓰히사' 성공 스토리

●열광선언 | 고마쓰 나루미 지음 | 김영근 옮김 | 이상 펴냄

식당 창업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책이 나왔다. 일본 '외식업계의 이단아' 마쓰무라 아쓰히사의 성공 이야기를 쓴 '열광선언'이다. 방 송으로도 여러 차례 소개된 마쓰무라의 성공스토리는 파킨슨씨 병으로 인해 더욱 극적으로 들린다. 2001년 도쿄 긴자 한복판에 엔터테인먼트 레스토랑 '뽀파이어 카페'를 열어 기존의 식당운영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 성공한 그는 체인점, 가맹점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 대신 개업하는 식당마다 전혀 다른 콘셉트로 히트를 쳤다. 식당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39세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신경퇴행성 질환에 걸렸지만 삶을 포기하거나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5년간 100가지 브랜드 100개의 점포를 목표로 더 열심히 일하자며 '열광선언'을 했다. 결국 2010년에 목표를 달성했다. 현재 171개의 브랜드와 340개의 매장을 열었으며 도쿄 증권거래소에도 회사를 상장시켰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열정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도 식당을 개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에 스토리를 입히는 아이디어를 배울 수도 있다. 일본 아마존에서 1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다.



뉴스디자인 | 유진한 기자 hja1787@donga.com